

“이젠 우리가 뜬다”

KIA 차일목·최경환·이범석·손영민 등

백업요원들 대타 출전했다 주전자리 굳혀



차일목 <타율0.281>



최경환 <15게임 타율0.412>



이범석 <데뷔첫승>



손영민 <3승 1S 3홀드>



반격이 펼쳐졌다.

최근 몰오른 타격으로 KIA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최경환이 좌전안타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연속안타로 1사 만루, 타석에는 포수 차일목이 들

어섰다. 앞선 타석에서 집요한 승부로 한화 투수 양훈에게 13개의 공을 던지게 했던 차일목은 이번엔 2구 만에 승부를 걸었고, 좌측 선상을 가르는 2타점 2루타가 터졌다.

6회 투아웃 이후 윤석민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손영민은 볼 뺏은 타선 덕에 3분의 2이닝만을 던지고 행운의 승리투수가 됐다. 벌써 시즌 3승째다.

이날 화끈한 대역전극에 나선 최경환·차일목·손영민은 올 시즌 자신의 기록을 새로 써내려가고 있는 선수들이다.

KIA는 올 시즌 서재응·리마·발데스 등 메이저리거들의 가세로 막강한 '4강후보'로 등극했다. 그러나

막상 투경을 열어본 KIA는 허점 투성이었다. 발바닥 부상의 이현곤은 지난해 타격왕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부진했고, 어깨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하차했던 포수 김상훈은 지난달 10일 인대 파열로 1군에서 하차했다.

부상의 악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고군분투하던 3번 타자 장성호는 손목을 다쳐 휴업하더니, 지난 1일 슬라이딩 도중 누를을 다쳐 아예 병원신세를 졌다.

투통으로 고생했던 최희섭까지 허리 통증으로 지난 12일부터 부상병동에 합류했다.

김상훈의 빈자리는 바로 눈에 드러났다. 3.31이던 팀 평균자책점이 5일만에 4.36까지 상승했다. 하지

만 묵묵히 제 역할에 충실하던 차일목의 성장은 '5월 대반격'의 기쁨이 됐다. 승리 투수들은 하나같이 차일목의 리드를 언급할 정도가 됐고, 14일 현재 타율은 0.281까지 올랐다.

최경환은 장성호-최희섭이 빠진 자리에서 만점 활약을 하고 있다.

뒤늦게 1군에 합류한 최경환은 15경기에서 0.412의 타율로 6타점을 만들었다. 게다가 36살 노장 최경환은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로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3년차 언더핸드 투수 손영민은 유동훈이 부진한 틈을 타 허리를 장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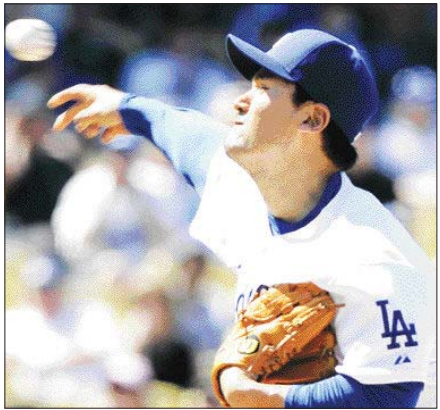
손영민은 지난달 3일 두산경기

에서 0-3으로 뒤지던 상황에서 등판했다가 한 회 4점을 뺏은 타선 덕분에 2이닝을 지키고 첫 승을 거두었다. 1.44의 평균자책점을 내세운 손영민은 14일 현재 3승 무패 1세이브 3홀드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7일 깜짝 호투로 프로 데뷔 첫 승을 거두었던 이범석은 지난 13일 한화전에서 8이닝동안 3피안타 8탈삼진 1실점의 완벽한 피칭을 선보이며 '반짝스타'가 아님을 증명했다.

비록 이 경기에서 패전 투수가 됐지만 이범석은 SK로 간 전병두의 빈 자리에서 자신의 야구 인생을 새로 써나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찬호 1년만에 선발

18일 LA 에인절스전



올해 통 릴리프로 변신한 박찬호(35·LA 다저스)가 1년 만에 빅리

그에서 선발 등판한다.

미국프로야구 다저스 홈페이지는 15일 박찬호가 사흘 뒤 오전 4시55분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린 LA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전에 선발 등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어제 대결을 펼칠 상대는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는 우완 어빈 산타나(6승)다.

전날까지 18일 에인절스전 선발로 대만 출신 좌완 귀홍조와 박찬호를 놓고 저울질을 거듭했던 조 토레 다저스 감독은 불펜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던 박찬호를 최종 낙점하고 고민을 끝냈다.

스프링캠프에서 에스테반 로아시에게 5선발 자리를 빼앗긴 뒤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던 박찬호는 지난달 4일 빅리구에 올라와 불펜에서 1승1세이브, 평균자책점 2.16으로 잘 던지고 있다. 특히 중간 계투로는 많은 3이닝을 내 차려나 던졌고 세 번이나 무실점으로 역투, 토레 감독으로부터 선발 가능성을 인정 받았다.

류시양 등 中 올림픽선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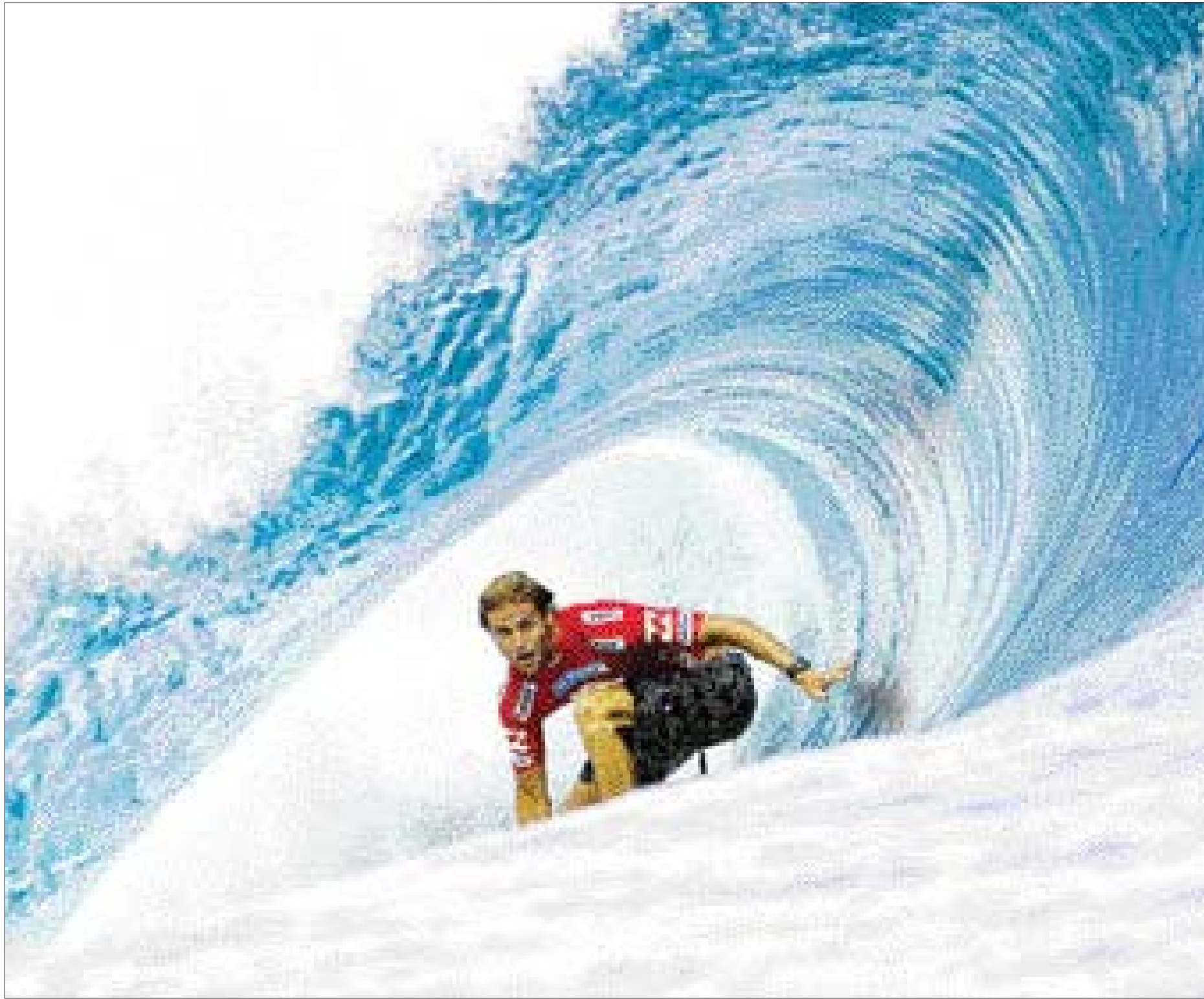
쓰촨성 지진 참사 성금 기탁

'황색탄환' 류시양(25), '걸어다니는 만리장성' 아오밍(28·휴스턴 로키즈) 등 중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쓰촨성 지진 참사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선수촌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던 22개 종목 중국 대표팀 선수와 코치 500여명이 14일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2004 아테네올림픽 남자 육상 110m 허들 금메달리스트이자 이 부문 세계기록을 보유한 류시양은 코치 순하이핑과 함께 50만 위안(7만1천달러)을 성금으로 내놨다. 선수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류시양은 "우리 대표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참사 현장에 갈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구조활동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미국프로농구 휴스턴에서 활약 중인 아오밍은 50만 위안을 기탁했다.



파도 터널 속 스틸 만끽

15일(한국시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열린 빌라봉 프로 타이티 서핑대회 ASP 남자 월드 투어 3차전에 출전한 루크 스테드만(호주)이 서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여자프로골프의 만년니 박세리(31)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산 클럽 제조업체 E2골프와 용품 사용 계약을 맺은 뒤 웃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세리 "멀리 보고 뛰겠다"

'E2골프'와 용품사용 계약

한국여자프로골프의 만년니 박세리(31)가 국산 골프클럽으로 장비를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박세리는 15일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E2골프와 용품 계약을 가진 뒤 "이제 시즌이 중반에 접어들었다. 성적이 좋지 않지만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2009년, 2010년까지 멀리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리는 "몇 년전부터 꾸준히 체력관리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비거리도 더 늘어나 편안하게 경기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최근 치른 대회에서 조그만 실수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아쉬워 했다.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우승 소식이 없는 대해 박세리는 "LPGA 투어에서 뛰는 선수들이 연습도 많이 하고 정말 달라졌다"면서 "아마도 한국 선수들 때문에 더욱 분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1인자로 군림했던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다는 소식에 대해 박세리는 "나도 평생 골프만 할 것은 아니다. 소렌스탐처럼 정상에 있을 때 물러나고 싶다"고 덧붙였다.

'얼음황제' 표도르 9월 방한

'얼음 황제' 표도르 에멜리아코(32·러시아)가 9월25일 한국을 다시 방문한다. 대한삼보연맹은 15일 "표도르를 포함한 러시아 삼보 선수단이 9월25일 러시아 전 세계를 타고 국내에 입국해 같은 달 26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제4회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표도르는 이로써 2007년 1월 서울에서 컴뱃삼보 시범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국내 땅을 밟은 지 1년 8개월 만에 한국을 네 번째로 찾게됐다. 2006년 1월 러시아 전통 무술인 삼보 흥보 차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표도르는 이후 격투기 시범과 팬 사인회, 광고 촬영 등으로 이미 세 차례 방한했다.

러시아 체육부장관과 정계 인사 40여 명 등 100여 명과 함께 러시아 전세기를 통해 입국하는 표도르는 세계사회체육대회가 끝난 다음 날인 10월 3일 출국할 예정이다. 표도르는 동생 알렉산데르 에멜리아코(27)와 함께 러시아 삼보 대표로 나선다.

김연아 내일 아이스쇼... "ET 춤 기대하세요"

목동실내링크서 18일까지

'공따라라 딱 쿵다 쿵다~' 아이스링크 실내 스케이팅에서 귀에 익은 선율이 흐르자 김연아(18·군포 수리고)가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의 예고스틴 몸 동작을 따라하며 이내 웃음꽃을 터뜨린다.

'KCC 스위첸 페스타 온 아이스 2008'(17~18·목동실내링크)을 맞아 오랜만에 '김연아 드림팀'이 한자리에 모였다.

15일 오전 양천구 목동 실내아이스링크. 취재진이 카메라의 셔터에 손가락을 얹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검정색 연습복에 점퍼를 입은 김연아가 링크에 모습을 드러내자 일제히 '찰라' 소리와 함께 조용하던 링크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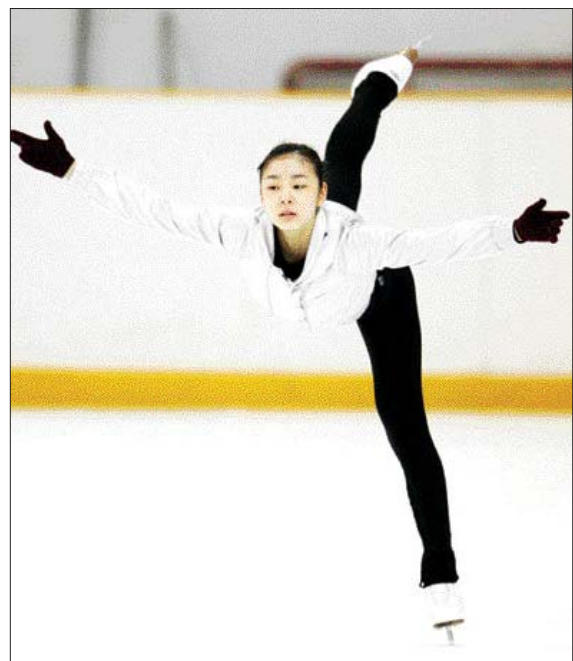
김연아가 링크에 도착하자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 안무

가 윌슨이 반가운 듯 가볍게 포옹을 나눈 뒤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갔다.

김연아가 주니어를 벗어나 시니어 무대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준 '김연아 드림팀'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이는 순간이었다.

독특한 것은 오프닝 공연에 쓰일 배경음악이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여성 4인조 그룹 주얼리의 댄스 음악인 '원 모어 타임'이라는 것. 김연아가 직접 곡을 골라 총연출을 맡은 오서 코치에게 추천했다. 이날 훈련에 앞서 안무가 윌슨은 주얼리의 일명 'ET춤'에 맞춰 양쪽 손가락을 맞대는 손동작을 선보이면서 선수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연아는 이번 아이스쇼에서 지난 시즌 갈라곡인 '온리 원'과 '저스트 어 걸'은 물론 조니 위어(미국)와 함께 커플 연기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피겨 팬들의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KCC 스위첸 페스타 온 아이스'(17~18일·목동실내링크)를 통해 오랜 만에 국내 무대에 서는 김연아가 15일 오전 목동실내링크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